

2019. 5. 5.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 5,29)

전동성당
교구 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사도 5,27-32,40-41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요한 21,1-19 (또는 21,1-14)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복음환호송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 언제까지?’

믿는 행위로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 도망가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 그들을 용감한 복음 선포자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1독서 참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체험이 강렬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제자들을 온전히 바꿔놓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총 3번(요한 21, 14 참조) 나타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두 번, 그리고 오늘 복음인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보입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골방에서 숨어 지내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 19, 23)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부여 받았던 제자들인데 만남과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우리도 함께 가겠소.”

아직 그들은 주님께서 맡기시려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듯합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의 일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던 베드로는 3년 전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려 하였고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스승

이 오시어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제자들이 여러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매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계속되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제자들의 삶의 자리처럼 우리 삶에는 부활이 온전히 숨쉬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신 그 의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남은 부활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 곧, ‘믿는 행위’를 위한 체험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반복적인 일깨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입과 마음의 신앙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죄에 대한 해방과 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삶을 사는 신앙인임을 잊지 맙시다. 믿는 행위로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합니다.



조용한 베드로 신부
고금 본당

음악의 어머니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후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대표하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Georg Friedrich Händel (1685.2.23-1759.4.1)은 독일 작센 지방 할레 Halle에서 태어났습니다. 헨델의 초상화를 보면 길고 굵은 파마 머리가 마치 중년 여성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헨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엄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동갑내기 바흐의 음악과 부드럽고 온유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는 헨델의 음악적 스타일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흐보다 헨델이 만인의 사랑을 받은 대중적인 음악가가 되었답니다.

헨델은 독일 함부르크와 이탈리아 피렌체 등지에서 활동하다 1712년 이후 런던에 정착하여, 앤 여왕의 비호를 받으며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는 1742년부터 오라토리오의 대가로 음악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46작품과 <오라토리오> 23작품, 많은 양의 교회음악, 모음곡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등의 많은 기악 음악 작품을 남겼습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초상화
발타사르 데너 Balthasar Denner 作, 1733년

오라토리오 Oratorio는 일반적으로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종교적인 내용의 음악 작품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세속적인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라토리오의 기원을 살펴보면, 1575년 성 필립보 네리 Filippo Neri (1515-1595)가 로마에서 신자들의 영적 지도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였는데, 이러한 기도 모임의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곳’을 의미하는 ‘오라토리움 Oratorium’이었습니다. 이 ‘오라토리움’ 장소에서 연주되던 음악이 발달하여 하나의 음악 형식이 되었는데, 이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오페라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져갈 무렵,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있는 한 자선 단체가 헨델에게 작품을 의뢰하자, 헨델이 불후의 명작이 된 오라토리오 ‘메시아 Messiah’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자선활동 기금마련을 위해 더블린에서 처음 공연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자선기금을 위한 공연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답니다.

‘메시아’는 모두 53곡으로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탄생의 예언과 실현, 제2부는 수난과 속죄, 제3부는 부활과 영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라토리오와 달리, ‘메시아’는 등장인물이 없이 독창, 중창 그리고 합창으로 줄거리를 해설하듯 연주됩니다. 이 작품에는 뛰어난 독창곡과 합창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은 제2부 마지막 곡인 ‘알렐루야 Hallelujah’ 합창입니다. 1743년 3월, 런던에서 메시아의 초연 때에 ‘알렐루야’가 시작되자, 영국 국왕 조지 George 2세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청중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알렐루야 Hallelujah’ 합창이 연주되면 청중이 기립한다고 합니다.

하이드이 ‘메시아’의 ‘알렐루야’ 합창의 연주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 무의식중에 ‘저편에 신의 영광이 나타났도다.’라고 외치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이드의 ‘천지창조’와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일컬어집니다.

추천음악 : ‘메시아’ 전곡



백정빈 모니카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교회음악원

‘할담비’ 할아버지, 유쾌한 세대 공감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든 노래를 외웠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대중가요는 물론 팝송도 달달 외웠다. 심지어는 한창 유행하던 홍콩 영화의 주제가까지 한자 밑에 한글로 독음을 달아 달달달 외우고, 중국어 특유의 콧소리까지 흥내내가며 부르고 다녔다.

나이 먹어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새 노랫말을 외우는 건 불가능해졌다. 특히 요즘 노래들은 가사를 보고도 따라부르기가 어렵다. 되풀이해서 들어도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노래 뿐인가... 적게는 서너명, 많게는 십여명까지 떼창을 하는 아이돌 그룹들은 노래는 둘째 치고 얼굴조차 구분이 안 간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바보로 안다.

그런데, 신세대 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최근에 있었다. 시골 아줌마 아저씨, 어르신들의 촌스러운 노래경연 썸으로 여겼던 ‘전국노래자랑’, 거기 나온 할담비(할아버지 + 손담비) 지병수 할아버지의 간드러진 춤사위와 노래가 장안의 화제였다.

인상 좋고 솜씨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의 재능(?)이 던진 화제는 폭발적이었다. 매력의 요인들을 나를 꼽아보자.

첫째, 리듬을 ‘갖고 노는’ 노래와 춤 솜씨다.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다. 손담비의 노래를 어른 버전으로 재해석한 솜씨, 특히 살짝 엿박에 반박을 먹고 넘어가는 춤사위가 여간 아니었다. 뉴스를 보니 18년 동안 전통무용을 사사하고 공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에 납득이 갔다.

둘째, 세대를 초월하는 파격, 구세대의 거침없는 신세대 공감이 신선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에 아이돌들의 얼굴도 구분을 못하는 나는 분명 바보다. 80에 가까운 77세의 어르신이 어떻게 어

린 세대의 노래와 춤을 공감할 수 있는지 신기하고 신선했다.

셋째, 하지만 정작 할담비의 깊은 매력은 따로 있었다. 처음에는 음주가무에 능하신, 젊어서 좀 놀아보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초수급생활비 50여만원으로 살아가시는, 젊어서부터 곡절이 많았던, 결코 유복한 한량처럼 살아오신 분이 아니었다. 한탄도 원망도 어색하지 않았을 평생에도 불구하고 그리 해맑고 긍정적인 노래와 춤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 깊은 속내가 감탄스럽다.

사람들이 그의 선물에 그리 흐뭇해하는 건 어찌면 그에게서 대리만족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누군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겠는가마는, 결코 자신들보다 수월치 않은 삶을 살고서도 저렇게 얼마든지 흥겹고 유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힘과 용기, 위안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가 독실한 불자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찌면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 듯하다. 새로운 문화에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는 일, 고된 일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과 삶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쓸모없는 욕심과 타산을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 이런 것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서 배울 수 있을 듯하다. 성당에 다녀오면 신바람 나도록,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사 광주 주재기자

이별 준비 이야기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



죽음 너머에 다시 해후할 수 있는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오랜만에 슬픔이 기쁨으로 치환되는 말기 암환자와 딸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의 저자 유성이 선생님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세상을 떠날 엄마와 남겨질 여덟 살 딸의 조력자이자 관찰자로 함께 한 이로서, 60일간의 준비가운데 두 인물의 변화과정을 섬세한 필치로 기록했습니다. 예술치료사 겸 죽음교육자로서 아이에게 엄마가 받아들이는 존엄한 죽음을 이해시키는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모녀는 남은 시간 추억을 쌓고 기억을 정리해 갑니다. 그러한 이별 준비 과정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가슴이 더욱 먹먹해집니다. 차마 암 투병 중인 분들에게 어찌 이 책을 읽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너무 소심한

생각이었습니다. 떠날 사람은 남겨질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기에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헤어질 준비를 더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연이와의 이별 준비를 하는 엄마 세레나, 차분히 순간순간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숨을 죽이며 함께 바라보는 저자가 건네는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글을 읽은 어느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세레나의 임종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견잡을 수 없이 뛰었다. 이 세상천지에 어린 딸을 남기고 가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엄마와의 영원한 헤어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딸 연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내 미래의 모습이 이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보육원에서 온 연이 모습을 봤을 때 딸아이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은 세레나는 “그대로 보내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라고 토해냅니다. 솔직함과 안타까움으로 범벅이 되는 엄마의 심정.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연이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이보다 애달픈 절규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엄마 세레나는 연이에게 엄마랑 이별한 직후에 해주고 싶은 말부터, 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남자 친구를 처음 사귄 때 등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며 연이와의 이별 연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수많은 암 투병 환자들이 겪는 아픔이 비슷하겠지만 저자는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읽어내면서 엄마와의 이별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또한, 아이와 나눈 동화책 이야기와 생명의 변화과정을 탐색하는 체험활동, 그리고 추억 사진 그림첩 만들기 등 유년기 발달 과정에 따른 사별치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작업을 통해 슬픔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연이야, 왜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느님은 운명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게요!”,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 “우리 엄마 언제 죽냐고…”

아이는 이미 세상의 슬픔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작인 부활을 알아버린 것일까요?

제 눈에 조용히 이슬이 맺힙니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성바오로 딸 수도회)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4월 29일 주교님과 함께하는
-5월 10일 사제 성지순례(이탈리아)
5월 11일 평동 성당 봉헌식



총대리 주교님 동정

5월 9일 살레시오여중과 부활미사
5월 11일 평동 성당 봉헌식
5월 12일 성소주일미사

사목국

32차 부부여정

기간 : 5.19주말-6.16주말주간, 매주주일 14:00-17:00
장소 : 서산동 성당 / 수강료 : 부부당 8만 원
대상 : 모든부부(부부가 함께 참가예(함) / 개인참여불가)
접수 : 5.10(금)까지, 전화 및 Fax 접수
문의 : 062) 267-0772 Fax 062) 266-2471

본당 노인사목봉사자 하루교육

일시 : 5.18(토) 10:00-17: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103호
강사 : 김지수 바실리사 자매
(평생교육원 노인여가활동지도사과정 강사)
대상 : 본당 노인사목봉사자 및 관심있는 모든분들
수강료 : 광주시내 2만 원, 광주시외 1만 원
계좌 : 농협 601135-55-000446 광주구천주교회
준비물 : 미사준비, 개인컵(필히 지참)
접수 : 5.12(주일)까지 그룹웨어(가정사목) / Fax 신청
문의 : 062) 380-2834 Fax 062) 380-2815
제6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화정3동 성당)

기간 : 6.1(토)-29(토) 5주간
시간 : 매주 토요일 17:00-23:00(저녁식사 제공)
장소 : 화정3동 성당 / 대상 : 모든 아버지들
인원 : 정원 36명
수강료 : 1인당 12만 원
문의 및 접수 : 화정3동 성당 062) 372-1799,
010-3617-5824 Fax 062) 374-1799

청소년사목국

행복을 수놓는 실그림(지수공예)

일시 : 5.18(토) 14:00
장소 : 청소년문화카페 꿈(광주교대 옆)
대상 : 청소년 및 청년 / 참가비 : 무료
신청 및 문의 : 062) 380-2279

3·1절 100주년 기념 5·18 도보순례 및 추모미사

일시 : 5.19(주일) 08:30-18:00
도보코스 : 종의공원-국립 5·18 민주묘지(총 14.8km)
추모미사 : 16:30,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신문
대상 : 청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신청 : 5.5(주일)까지 본당별 신청그룹웨어 김현신
문의 : 062) 380-2275

초등 여름신앙학교 연수

일시 : 5.26(주일) 09:00-16:00 /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대상 :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
신청 : 5.17(금)까지 그룹웨어 신청
문의 : 062) 380-2271~2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06:50-07:00] (방송 후 홈페이지 '다시듣기 서비스 이용 가능')

5.6(월)-8(수) 장민희 신부(영산포 본당) / 5.9(목)-11(토) 홍진석 신부(서산동 본당)

(선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 성경 속 하느님 마음' [5.9(목) 14:05-14:25]
성바오로딸수도회 운영한 수녀님이 출연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9(목)에는 민수기의 저자와 구조 등 '민수기 입문'에 대해서 방송합니다.

(시사 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 지금은 백세시대' [5.9(목) 17:30-17:42]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를 통해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개국23주년기념 후원회원초청 '평화음악제' 초대권 신청안내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는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평화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일시 : 6.3(월) 19:30 / 장소 : 광주5.18기념문화센터 / 초청대상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원
초대권 신청 : 5.2(목)부터 선착순(1인 1매)접수 (조기매진이 예상되오니 빠른 접수를 바랍니다.)
접수방법 : 1. 전화접수 : 062) 231-7745, 7709 2. 문자전용 휴대폰접수 : 010-4828-7745
문자전용 휴대폰접수는 후원회원명(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 St. 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www.paulustour.com 문의: 062) 381-9004

이스라엘(9월) 6.13(목)-21(금) /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독일수도원 순례(11일) 9.6(금)-16(월)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대학원 가톨릭캘러리 현 책다하기사당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0~5

힐링무비&힐링토크 '엄마의 공책 Notebook from My Mother (2017)'

[일시] 5.8(수) 14:00-16:30 [수강료] 1화-1만 원 [주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장소] 대건문화관

2019 여름학기 신규강좌(12주) 수강생 모집

가야금 기간 : 6.4-8.27(화) 10:00-12:00 / 6.13-8.29(목) 19:00-21:00 수강료 : 15만 원
강사 : 구경화 [담양도립대학교 가야금병창 전공] ※ 가야금 개별 준비

가야금과 청을 동시에 배우는 병창 수업으로 가야금의 타법과 계명을 익히고 민요를 부르면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등,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악기와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강좌

민요 기간 : 6.13-8.29(목) 시간 : 14:00-16:00 수강료 : 15만 원

강사 : 송주월 [국악대경연대회 민요 일반부 대상 수상자]

서민의 애환을 담은 소리로 우리의 한과 얼을 소리로 표현해보는 과정으로 호흡법을 배우고, 폐활량을
강화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불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좌

판소리교법 기간 : 6.7-8.30(금) 시간 : 19:00-21:00 수강료 : 15만 원

강사 : 이준수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보유자] ※ 소리북 개별준비

우리 민속 음악에 담긴 선조들의 풍류적 삶을 살펴보는 판소리교법과 우리 민속 음악의 정수인
판소리를 맛살스럽게 볼러볼 수 있는 판소리과정으로 구성된 강좌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정의 평화위원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일시 : 5.6(월) 19:00
장소 : 남동 성당
특강 :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강사 : 오수성 센터장(광주트라우마센터)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 기념미사

일시 : 5.13(월) 19:00 공동목주기도
19:30 미사
장소 : 남동 성당 / 문의 : 062) 380-2290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들'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들' 회보 발송(분기별)
- 후원회원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화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기관 · 단체

민족화해와 일치,

교회와 가정성화를 위한 기도

일시 : 매주 화요일 13:00-16:00

장소 : 염주동 성당 소성당

062) 373-4799

문의 : 체나콜로기도 봉사회

바오로딸 복권서트

일시 : 5.8(수) 19: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내 바오로딸서원

주제 : 주락권 신부의 내가 사랑한 책

문의 : 062) 528-1004

봄 보성, 우리말발길 추억행사

일시 : 5.11(토) 10:30-15:00(10:30미사)

장소 :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부춘마을

문의 : 가톨릭농민회 062) 373-6185

순천지구 춘계성령대회

일시 : 5.13(월) 09:00-17:00

주제 :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강사 : 고영민 안드레아, 손현희 데레사-삼성산

회비 : 없음, 김밥판매

장소 : 저전동 성당 010-6227-8395

춘계성령대회

일시 : 5.20(월) 09:00-17:00

주제 : 자비와 회복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천주교사도직회)

장소 : 염주동 성당 / 무료

문의 : 성령봉사자회 062) 382-6002

35기 광주전남 생태귀농학교 개강안내

일자 : 5.21(화)-6.28(금) 매주 화,금 19:00

장소 : 광주공우센터

문의 : 가톨릭농민회, 귀농학교 062) 373-6185

영원한 도움의 성모 기도피정

일시 : 5.8(수) 13:30 광주 평생교육원 대성당

5.14(화) 13:30 목포 가톨릭회관 2층

내용 :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문의 : 구속주회 010-9239-4590

서울삼성산 2박3일 무료치유 대피정

기간 : 5.10(금) 18:00-12(주일) 15:00

장소 : 서울 삼성산 피정의집

강사 : 황인수 신부 외 전국 유명강사

내용 :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 광천터미널 12:30,

문예회관 후문 12:40,

점음, 전주도 경유합니다.

문의 : 010-2374-9416

살레시오영성의집 1일피정

일시 : 5.13(월) 09:30-16:30

장소 : 살레시오 영성의집(매월동)

문의 : 062) 373-8712, 010-3866-2248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올레,미사, 기도 강의

기간 : 5.14(화)-17(금), 5.19(주일)-21(화),

5.23(목)-26(주일), 5.29(수)-31(금),

6.10(월)-12(수), 6.14(금)-16(주일)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064) 796-9181

젊은이 침묵피정(미혼여성)

일시 : 5.18(토) 16:00-19(주일) 16:00

장소 : 남평글라넷선교수도회

접수마감 : 5.16(목) 19:00까지

문의 : 010-3359-1958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 5.19(주일)-22(수)(*), 5.31(금)-6.2(주일),

6.10(월)-13(목)(*), 6.18(주일)-19(수)(*),

6.22(토)-24(월), 7.1(월)-3(수), 7.8(토)-8(월)

(*표시 : 추가도)

접수 : 02) 773-1463 / 064) 756-6009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만자 수녀)

일시 : 1박2일 5.25(토)-26(주일) / 6.15(토)-16(주일)

3박4일 6.6(목)-9(주일) / 7.1(목)-4(주일)

8박9일 6.24(월)-7.2(화) / 8.7(수)-15(목)

40일 6.17(월)-7.26(금) / 9.16(월)-10.26(금)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 031) 953-6932, 010-4906-5722

임상사목교육(CPE) 가을학기

기간 : 8.14(수)-12.11(수),

8.17(토)-12.7(토) 9:30-17:30

장소 : 천주익성요한병원 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수 도 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사피정

기간 : 5.18(토)-19(주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참제자마을 피정의집

주제 : 수녀님들의 선교체험, 소소(昭昭)한 나눔

대상 : 만 35세 미만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피정비 : 1만 원 / 문의 : 010-3015-1773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 5.12(주일) 10:00-17:00

대상 : 만19-38세, 남녀

장소 : 가톨릭선교회(해외동)성골롬반외방선교회부스

문의 : www.columban.or.kr

02) 929-48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선교체험(대만)

기간 : 8.1(목)-6(화) 5박6일

대상 : 만19-35세, 청년남녀 15명

경비 : 100만 원(항공료 포함)

마감 : 6월 중순

문의 : 02) 953-0613

예수고난회 은인모임2

일시 : 5.11(토) 17:00-12(주일) 12:30

장소 : 일곡동 명상익집

대상 : 예수고난회 후원자

문의 : 062) 571-5004

예수고난화청소년지도강사 양성교육

기간 : 7.27(토) 14:00-28(주일) 15:00

주제 : 놀자(놀면서 자기 찾기)과정1차

대상 : 교리교사, 청소년지도자, 교사

장소 : 일곡동 명상익집

문의 및 신청 : 062) 571-5004, 32명 접수순 무료

미래내성모성심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수시가능

장소 : 수리치굴 성모성지(본원)

문의 : 010-2844-6773

본 당

월산동 본당 사무장 채용공고

채용사유 : 현 사무장 정년퇴임(6월)

자격 : 세례 3년 이상 교육,

컴퓨터운용 가능한 분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 및 자격증사본

접수방법 : 사무실에 서류접수 후 개별면접

마감 : 5.26(주일)까지

문의 : 010-6287-2005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일시 : 5.11(토) 10:30

장소 : 북동 성당

집전 : 이영수 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 062) 380-2210~5

상설고해소(평생교육원 성당)

운영시간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문의 : 062) 380-2210~5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나눔 · 생명존중 공모전

김 추기경님의 생명존중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5.1(수)-9.30(월) 웹하드, 우편접수

분야 : 포스터 · 솔로전 · 글짓기 · 동영상 · 웹툰

공모방법 : obos.or.kr 참조

주관 :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신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보,

“신앙과 삶” 코너를

기획 ·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내용 : 신앙체험 이야기

성명 · 세례명 · 주소 · 전화번호 · 소속본당 명기

분량 : A4 2/3장(11point), 원고지 6장 이내

접수 : 이메일 hongbo@gjatholic.or.kr

우편 6190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 사무처 홍보 담당자 앞

*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된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